

현장시선



박 양 호
제주지방조달청장

삼국사기에 신라에서 누각(漏刻)이라는 물시계를 만들어 백성에게 시보(時報)했고, 조선시대에는 물시계 관리비용 과다 단점을 보완한 기계장치 자격루를 제작해 시간을 정·중·북으로 시보했다. 이후 궁궐 밖의 백성을 위해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모습의 해시계 '양부일구'를 널리 보급시켰다고 세종실록에 기록돼 있다.

물시계, 해시계가 '혁신장터'로 맥(脈)이 흐른다

현대적 기술사업에서 혁신기술 개발은 미래의 수익성에 투자하는 것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세계 선도기업 도약의 발판이기에 지금도 전 세계는 혁신기술개발을 앞다퉈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혁신기술 개발업체들은 "공공기관들이 오래된 기존제품은 구매하는데, 혁신기술제품은 구매해주지 않는다", "판로가 어려워 혁신기술을 해외에 팔거나 사장(死藏)시켰다", "판로 개척이 어려워 기술개발 투자가 꺼려진다" 등 정말 안타까운 설움을 하소연하곤 한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혁신기술 개발업체들의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해 '혁신장터'를 구축했다. 혁신성이 인정된 상용화 전 시제품과 우수연구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초기 구매자가 돼 실제 사용해보고, 그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하면 물론 그 테스트 성과를 토대

로 조기 시장화와 상용화를 지원하자는 등 차세대 산업과 혁신기업들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혁신시제품(공급자 제안형)은 155개 제품이 지정돼 107억원 이상 구매성과를 거두고 있고, 올해부터 시장과 공공기관들의 필요성을 반영한 수요자 제안형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다수 사상자 대응시스템 등 추진과제 선정, 테스트 기관과 혁신기술제품을 지속 모집·발굴 중으로 혁신기술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편함으로 언젠가 출근길 라디오 방송에서 대학생이 "캠퍼스 잔디에서 친구와 마음껏 어울리고 싶다"는 인터뷰가 기성세대인 내 가슴

을 정하고 미안하게 만든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 삼아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세상, 미래의 주역인 밀레니엄 세대를 위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혁신기술은 끊임없이 개발돼야 하고, 혁신기술제품 테스트 기회 부여와 판로 보장, 더 많은 고용 창출, 새로운 설비투자자 혁신기술 발전, 세계시장에서 월등한 경쟁력 확보라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국가·공공기관부터 혁신기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문화에 동참해야 한다. 병아리가 앞에서 나오려 안에서 앞을 쫓을 때 어미 닭이 바깥에서 같은 부분을 쫓아 나오는 것을 도와주는 '출타동식'의 마음으로 혁신기술 개발과 혁신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조달청 혁신장터'에 제주 공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혁신기술 구매사업이 제주에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사설

신규 면세점 문제, 국감장까지 달궜다

기획재정부의 독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주에 신규 면세점 허가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도 면세점 개설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에 추가 허용한 신규 면세점 문제가 국경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대상 국경감사에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허가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신세계가 부지를 매입했다가 6월에 포기했다"며 "그런데 기재부가 한 달 후인 7월에 결정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 의원은 "기업도 부지를 샀다가 위약금까지 내면서 물러났는데 기재부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기존 면세점도 폐업 휴업하는 판에 추가로 하나 더 지정하면 더 어려워진

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도 신규 면세점 특허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박 회장은 "기존 면세점 주변은 교통문제, 건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제주 소상공인들이 밀려나고 있다"며 면세점 특허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잖아도 코로나19 여파로 제주관광이 상당한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분석한 제주관광의 손실액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5개월 새 제주 관광산업의 피해 규모가 무려 1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에서도 제주가 올해 1·2분기 모두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지역경제를 위해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오히려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제주농업의 위기... "농정 있긴 하나"

제주농업의 위기가 최근 몇 년 새 '천길 낭떠러지'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갑골 마늘 양파 양배추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농심이 타들어갔지만 제주도나 농협 등의 새로운 농업대책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농민들의 하소연은 "무얼 해 먹고 살까"는 탄식으로 이어진 지 오래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기 그지없는 제주도 농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기 그지없는 제주도 농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기 그지없는 제주도 농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기 그지없는 제주도 농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실제 기인하기도 합니다. 송영훈 도의원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2016년 11.3%, 2018년 10.8%, 2019년 10.4%에서 올해는 9.7%로 줄었다"며 "내년 1차산업 예산도 한 자릿수로 떨어져 1차 산업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농업위기를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적돼 온 물류비 문제도 오랜 기간 답보상태입니다. 물류비 국비 지원, 유통단계 축소에 의한 물류비 절감 등에 대해 농정당국이 초기에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농업으로 먹고 사는 기관들이 제주농업 발전을 위한 '업분류'를 수없이 하면서도 실효 집행된 사실이 없어 있으나마나 한 제도"고 질타했습니다. 선거용으로 내놓았다가 전혀 이행치 않아 위기로 내몰린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얘기입니다. 제주농업의 위기는 제대로된 농업정책을 발굴하지 못한 농정에다 관련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는 현

열린마당

바뀐 세상 속 수습 공무원



홍 성 민
서귀포예술의전당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출근과 동시에 정식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건 아니다.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배우는 '실무수습' 단계를 거쳐야 한다. 내가 배지던 부서는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과 전시 등 서귀포시의 문화예술분야의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부서의 팀은 모두 3개. 공연의 운영과 안전관리를 관장하는 공연운영팀, 공공시설물의 최적화 유지를 위해 정비를 담당하는 시설관리팀 그리고 설비 및 기획과 예산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지원팀이 있다. 직원의 따뜻한 환대 속에 업무를 배우며 선배 공무원의 작성문서를 살펴보다 눈에 띄는 제목을 발견했

다. '공연취소 알림',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공연과 전시회,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모두 취소한다는 공지문이었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이런 상황을 관망하며 손을 놓고 있지않은 않았다. 우울한 시민의 마음을 문화예술로 달래주기 위해 언택트 현실을 감안하며 다양한 비대면 공연을 열어 실황을 인터넷으로 중계했다. 게다가 이번달 31일에는 끼와 재능을 겸비한 비전공 아마추어 성악가를 발굴해 대극장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배 공무원들은 격의 없는 짚은 토론을 통해 공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며 시민들의 예술 향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후일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 나를 비롯한 선배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고생했다며 환하게 웃음 짓는 날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테스형에게 "형, 힘들었지만 우린 나름 답을 찾았어"라고 말하는 발칙한 상상도 해본다.

뉴스-in

도민은 1km 이내, 행정은 마음대로

차고지증명제 형평성 논란
○...행정이 제주종합경기장 내 주차장을 관용차량의 차고지로 활용해 논란.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희)의 도 교통항공국과 공항공정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의 위원장과 조훈배 의원이 도민들은 주거지 1km 이내에 차고지를 가져야하는 반면, 행정은 제주종합경기장 내에 관용차량 차고지로 등록해 이용하고 있다며 관용차량 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주문. 문경진 도 교통항공국장은 "행정시와 관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 이태윤기자

15일 회의에서 저비용항공사 중 첫 지원 대상인 제주항공의 기금 지원 총액 요건 등을 논의했으며, 제주항공이 기금 지원받으면 2호 지원 기업으로 부각.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달 마지막 회의에서 지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 규모는 2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제주항공 지원 여부에 관심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에 민간사업자 지원이 지원될지 항공업계의 관심이 집중. 민간사업자 지원이 지원될지 항공업계의 관심이 집중. 민간사업자 지원이 지원될지 항공업계의 관심이 집중.

문화예술축제 이정표 제시

○...제주예총이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제59회 탐라문화제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문화예술 축제에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자평. 특히 새별오름 광장 '드라이브 인 콘서트' 현장 관객 인원은 제한됐지만 유튜브 생중계 관람 인원이 총 6160명에 이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 김선영 회장은 "더 많은 고민과 시도로 제주가 문화예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 전선희기자

부 고
현기학(현일약품 대표) 아버지 연주 현공 성우(前 표선면장·향년 85세)께서 서귀 2020년 10월 14일 02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0월 16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10월 17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표선면 세화1리 선영
부 인 김옥자
아 들 현기학 며느리 고명임
딸 현기정 사 위 김필수
아 들 현길화 며느리 김경순
아 들 현상학 며느리 고은희
손 자 현지훈 손 부 김소혜
정훈 손 너 현채원
수훈 외손녀 김미림
도훈 헤림
증손자 현서진
※ 연락처 : 현기학 010-5228-6212
현길학 010-3381-4215
현상학 010-3231-4215
김필수 010-3360-8010

부 고
현형수 어머니 청주한씨 경옥(향년 101세)께서 서귀 2020년 10월 15일 06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0월 16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10월 17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한빛장례식장 연꽃분향실
▶장 지: 서귀포 추모공원
아 들 현형수 며느리 김춘옥
익수 이경숙
인수 원영내
창수(故) 공미영
딸 흥자 사 위 한기창(故)
정자 정창범
윤자 김대종
해자 김순홍
손 자 현도근 외손자 한우만
※ 연락처 : 현형수 010-5177-1308
현익수 010-8660-8498
현인수 010-3697-206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권위오씨 형옥(향년 8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0월 16일
아 들 현창선(아내)오 머리 고국희(아내)
창훈 김미아
창성 신효경
딸 현옥선(세례) 사 위 이창은
옥림(아내) 양경림(오빠)
옥순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창홍(향년 9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0월 16일
아 들 고주봉 며느리 오은숙
성봉
딸 고숙희 사 위 김준오
복희 박태우
은희 이병호
옥희

금매 (운석)
• 감정가 : 20억원
• 매매가 : 2억원(절충)
※ 대물가능 ※
연락처
010-4855-601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의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